

보디사트바

Bodhisat tva

2010년 봄
제3권 제1호, 통권86호



여는 글	04	살아있음에 행복합니다	능 행
명법문·명강의	06	이 시대 최고의 수행	청 전
내 마음의 경구	11	아띠사(katisha)	
법향	12	기도	능 행
명상카툰	17	으뜸의 공양은 보리심	용정운
경전 이야기	18	내 마음의 고향 '법화경'	명 현
심리치유	20	요가명상과 심리치유	김선경
만화로 만나는 뜨락	22	마음발에 무얼 심지?	최영순
의학이야기	24	암의치료	김진목
보디사트바의 향기	27		
임상의 숲	28	사랑이 넘치는 마음	홍등행
마하보디의 앨범	30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 일년, 그 후	김경오
우리들의 이야기	31	하나, 전지윤(갯바위 치매센터 간호사, CPE수료생) 둘, 송운환(현대자동차 불자회, 상담대 1기생) 셋, 해인심(정토사 관자재회 자원개발부 부장) 넷, 정승민(동국대 불교학과학생, 30기 호스피스수료생)	
내 마음의 시어詩語	40	인도 성지에서	
마하보디교육원 소식	42	마하보디교육원 소식	
자제병원	44	자제병원	
정토마을	45	정토마을	
기부금 내역 안내	46	기부금 내역 안내	
후원 안내	47	후원 안내	
마하보디교육원 교육 안내	48	마하보디교육원 교육 안내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 안내	49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 안내	

· 발행처 정토사관자재회 · 발행일 2010년 3월 1일 · 발행 · 편집인 능행 · 등록 울산비01004(2008.4.11.)
· 기획위원 강옥희 희유 · 편집위원 김경오 김성규 박정선 상진 장용렬 · 편집장 수필
· 주소 정토마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 전화 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전화 052)264-1007, 0117 팩스 052)264-0209
· 기획 · 편집 맑은소리 맑은나라 전화 051)255-0263 팩스 051)255-0953 · 제작 아따울 | 비매품

살아있음에 행복합니다

능행(마하보디교육원장)




설날 아침입니다.

마음의 연꽃 한 송이 피워 경인년 설날 아침에 후원자님에게 세배와 함께 올립니다. 밝은 복이 한 해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복된 나날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설날 아침, 모두가 고향으로 떠나고 고요가 깃든 언양 교육원에서 설을 맞습니다. 앞산 뒷산 영남 알프스에 하얀 눈이 은빛을 발현하며 주단처럼 깔려있습니

다. 참 오랜만에 커피향을 맡으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기뻐하며 여유를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지복한 행복감이 스며들면서 앞산의 하얀 눈이 가슴에 안겨오면서, '삶 그 자체가 선물이구나' 싶습니다.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들꽃처럼 풍요로운 삶, 생명의 근원이 되어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고 봄별같이 따사로운 삶, 이 고귀한 삶은 지금 이 순간 뿐이라고 나에게 조용히 속삭여 줍니다. 살아있는 순간순간은 이토록 절실한 것, 누구에게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으로 일체의 행복을 발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 햇살에 녹아 흩어지는 흰눈의 날갯짓들을 볼 수 있어 좋고, 정월 차가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새들의 재잘거림을 들을 수 있어 좋고, 밤이면 깊게 내린 어둠 사이로 투명한 눈빛을 보내는 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참 아름다운 세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온기어린 마음을 보내는 따뜻한 당신이 계시어 더욱 좋은 세상입니다.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것,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시간들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의 행복한 꿈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삶들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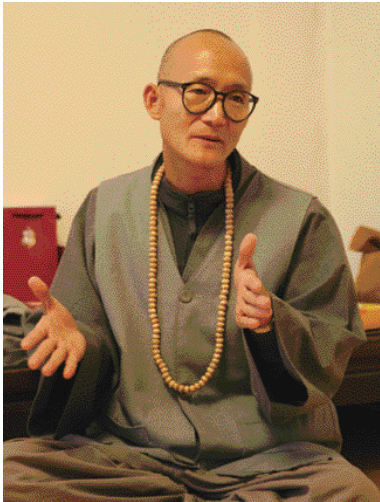
올 한해도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아름다운 사랑을 맑은 물처럼 흘러 보내는 삶이기를 기원합니다.

자제병원 건립에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함께 해 주시는 이 길 위에 맑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양 자제병원 건립부지에서 후원자님들께 능행 지심정례 올립니다. 卍

이 시대 최고의 수행

청진



● 촛불과 가족신발의 마음가짐

지금 한국의 상황은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도덕률과 상호신뢰가 없이 그저 경제의 원리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암흑을 없애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촛불이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세상이 가시밭길이라 해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시밭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가시밭길을 모두 가족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렇지만 우리가 가족덮개로 잘 만든 신발하나 있으면 그 가시밭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칠혹같은 암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에 달려있는 것이며, 가족신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보리밥 먹기도 힘들어서 살기 어려웠을 때는 그래도 인간의 혼이 있어 서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와 나로 분리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동체대비 하나인데 이런 암흑 속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



러분들이 법화경 신행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수행인 것입니다.

능행스님이 인도에 왔을 때 나는 스님에게 “능행스님의 이것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이다.” 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자들은 자비의 실천자이자 최고의 수행자들입니다. 남을 배려할 때가 최고의 행복한 순간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의 중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동행해주며 부처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은 공덕 중의 공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비구로서 가장 큰 공덕은 늙어 죽어가는 노비구의 수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배려할 때 절대 그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보살행을 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지만, 불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티벳에 “뿌리가 독인 나무는 성장해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어도 독이 되고 뿌리가 약인 나무는 성장해서 자라 뿌리와 줄기 열매 이파리가 모두 약이 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보살행과 자비의 실천을 하면서 어떤 바람이나 아만이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청정한 수행자

불가에서 아침에 축원할 때, 견아형자 득해탈 문아명자 면삼도(見我形者 得解脫 聞我名者 免三途 : 나를 보는 자가 해탈을 얻고 나의 이름을 듣는 이는 삼악도를 벗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구절을 스님께서 염송하십니다. 한여름에 큰 나무 밑에 가면 얼마나 시원함을 얻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귀의처가 되고 복전이 되고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의 법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저 역시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봄으로써 환희심이 일고 불교의 법을 알고 그런 존재자가 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다람살라에 어느 노스님이 계십니다. 가끔 한국에서 신도나 스님들이 오면 그 노스님에게 인도하는데, 그 스님을 보는 신도나 스님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평평 읍니다. 그 분이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왜일까요? (침묵) 다만 한 가지 이유, 청정해서입니다. 그 청정의 힘이 온 사람을 정화시키고 업장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저 그분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 너무 맑아서 하늘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절수행을 하시는데, 높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부다가야에서 20만 배를 하십니다. 그분이 20만배씩 그동한 한 절이 480만배라고 합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수행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삼천 배 6시간 한 것보다 더 큰 것은 108배 끊이지 않고 365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반복하며 좌절하지 않고 수행할 때 그곳에 부처님의 가피와 더불어 자기의 숨어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구경에는 붓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청정하게 사시고 부처님의 경율론과 계정혜 삼학을 많이 경험해서 신도들을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첫째는 청정이고 둘째는 정진으로서 교학과 함께 자기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 예불의 의미

요 근래 한국에서는 티벳불교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희생을 치르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이란 절하고 염불하고 탐돌이하고 그런 신앙의 실천을 통해 자기 정화를 하는 것이며 업장소멸은 희생을 치르는 신앙생활에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경전을 보고 환희심과 함께 밖에 나가 자비의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 “자비심 보리심의 실천이 곧 수행의 기반이 되고 깨달음 곧 공성을 터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티베트에서는 깨달음을 ‘공성을 터득한다.’ 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달라이라마에게 “그러면 당신은 공성을 터득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 “상대방이 깨달았는지 아닌지는 본인의 지혜의 눈이 있으면 압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눈에는 오안(五眼)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인 육안(肉眼), 공부를 해서 지혜를 갖춘 혜안(慧眼), 아라한의 경지에서 육신통을 보는 천안(天眼), 보살경지의 법안(法眼), 부처님의 경지인 불안(佛眼)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육안만 가지고 살면 안되며, 우리가 바른 동기와 원을 세워서 천안까지는 갖추어야 중생을 제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불사는 법을 지키고 법을 펴는 것입니다. 예수나 붓다시대에는 어떠한 신전이 나 법당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뒤 진리의 말씀은 없어지고 형태와 습관만 남아 의미를 상실한 불사와 죽은 예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보고 계시는 여기에서 우리가 존경과 귀의와 자기의 허물을 참회하고 원력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예불입니다.

● 원력이 바로 불교의 꽃

여러분들처럼 행복한 사람들과 있어서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행복합니다. 저도 다시 인도에 가면 가지지 못한 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 뚝방, 냇물, 바다와 같은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물의 왕은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게 있으면서 모든 물을 섬기기 때문에 바다가 왕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도 낮게 있으면서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중생을 섬기는 행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 보편적인 진리는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



께서도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 모든 악은 그치고 착함을 받들어 행하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우리는 끝까지 아래로 자신을 낮추면서 착하게 자기의 마음을 길들이는 것으로서 혼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 힘들 때 의식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번뇌가 있고 갈등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끝없는 화두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인간에게 있었던 화두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만물의 근원이 뭐냐고 했을 때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소크라테스에 와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언제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분이 나타나서 '네가 바로 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분이 바로 붓다였습니다. 그와 같은 붓다의 말씀을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며 그 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바다처럼 겸손하고 남을 위해 살 때이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바세계의 뿌리는 고쁨 와 무상無常 과 무아無我 이지만 이곳을 통해서만이 절대세계를 공부하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곳에 병원이 개원되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보게 되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모두 죽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삶이 최고의 수행이 되고 최고의 행복이며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서 자타를 위하는 불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장보살의 원력과 같은 것이 불교의 꽃입니다. 우리의 일도 한꺼번에 안되는 것이며, 보살의 실천 자비행의 실천 역시 끊임없이 반복해서 천천히 꾸준히 한걸음씩 하는 것입니다. 卍

청전스님

1988년 이래 북인도 다람살라에 거주하면서 달라이라마 곁에서 보리심을 기반으로 한 공성의 터득에 전념 수행하고 있다.



실천이 진정한 이해를 가져 온다

진정한 이해가 일어나는 것은 오로지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열렬한 연구가 가져오는 것은 약간의 이해뿐입니다.

그러나 실천은 훌륭한 이해를 가져옵니다.

- 아디사(atisha)





기도

능행(마하보디교육원장)



● 가슴으로 학습하는 기도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몸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입만 하는 기도인지, 마음만 하는 기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입과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이 같이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몸 밖으로 드러내어 우주의 진리와 정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화경 기도를 통해 병원을 짓고 전 인류가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기아가 없고 건강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안에서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하고, 어떻게 몸과 마음으로 실현할 것인가 명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선업(善業)을 완성하기 위한 기도

우리가 함께 창조해 내고자 하는 자제병원이라는 곳은 암환자중심으로 1층은 호스피스를 위한 병동, 2층은 암환자 재활병동, 3층은 승가병동으로 구분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원을 건립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요? 우리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병원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너무 많은 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병원 공화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병원을 세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단지 병원만을 지어달라고만 부처님께 발원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자제병원은 그런 의미의 병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이 병원은 하나의 수행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들은 죽어가면서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 행복한 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화되는 곳이 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우리는 그들을 통해 선업을 쌓고 공덕을 짓고 그들의 죽음의 여정을 통해 생사의 실체를 바르게 보고 삶을 아무지고 알차게 다져가는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한 터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어가는 그들이 살아서 세상을 향해서, 부자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난하더라도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 위해 이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 모두에게 수행이 되어서 잘 죽을 수 있고 잘 돌볼 수 있고, 선업을 짓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여 공덕을 짓고, 생사의 실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혜안을 얻어 우리의 존재가 무상하고 허망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가슴으로 학습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듯 특별한 수행처를 만들고 그리하여 범화경 기도를 해서 3천 명의 범화행자들의 힘으로 그들이 투병할 침대를 사고 의료기기를 사고 그 내부시설을 구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것입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는 무한한 선업을 지어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윤회할 때 보다 더 수승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온다면, 세상을 더욱 더 건강하고 맑게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닢빠나에 들어 사찰을 짓는다면 무한한 광명으로 뜻을 발현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선업(善業)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조건 없이 일어나는 사랑과 자비를 이 기도를 통해서 뽑어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 삶의 영역 안에

서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병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상구보리 하화 중생하는 대승불교의 근본이념이고 자리이타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 어둠을 빛으로 전환하는 기도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종착역은 어떠한가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친구들만이 동행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골병이 다 들고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병원이고 저승길입니다. 너무 허망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병원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삶이 조금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 무엇이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려 할 때의 두려움과 공포야말로 경험하지 않은 자는 모릅니다. 고통의 무게는 예고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자신과 모두를 침몰시킬 수 있는 어둠의 에너지가 되어서 괴로움과 두려움을 짓누르게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고통에 침몰당하지 않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내 안에 끝없는 사랑을 일구어서 세상에 드러내줘야 합니다. 산소와 공기와 물을 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회한과 아쉬움과 분노일 뿐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신 부처님의 연기법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욕망과 욕구로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들끓는 마음 안에서 평화가 생겨나고 이기심에서 사랑과 이해가 생겨나기를.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어내고 드러내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공덕이 되는 기도

여기까지 오는 이 정성과 과정이 희유하고 착한 행업이 쌓이는 행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유하고 기쁜 일을 함께하고자 마음을 내어 오는 것을 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과 마음이 쌓이면 이것이 기도하는 이의 자세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반드시 몸이 움직여서 그에 상응한 행이 있을 때 기도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실천할 때 선업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만으로 천배 만배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면 물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을 다하면 마음이 몸을 품어 안으면서 몸이 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품어 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계를 끄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기계를 끄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물이나 기름을 뽑아서 기계를 끄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와 같이 기도할 때 몸으로만 하면 뼈가 닳고 몸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온전한 사랑과 자비를 자신의 안에서 드러내면서 기도한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서로 품어 안아서 기도의 힘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원이 진리와 정합해야 합니다. 나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나와 같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나 또한 그들의 공덕으로 같이 행복하기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발원하고 행이 따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몽친다면 이 우주법계가 말끔히 정화되고 청정해질 것입니다.

중국에 바람만 불어도 황사가 한국까지 오는데 우리가 지극한 마음을 내면 시공을 초월해서 자유자재해서 가 닿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33천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온 우주에 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롯하고 온전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도 버림받지 않고 치유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염원을 가지고 기도의 마음

으로 했다면 이 기도는 더욱 더 고결함으로 우주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 회향이 되는 기도

기도를 통해 그러한 사랑을 뿜어내준다면 우울증과 희귀병들이 다 회복되지 않을까요? 많은 질병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 존엄에 대한 부재가 이러한 병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듯 공포에 싸이는 것은 사랑의 결핍, 그리고 인간존엄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세우는 이유는 건강하게 살게 하고 마음과 몸과 생각을 청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28품 전품을 독송할 때도, 호흡 한번 할 때도, 자비가 뿜어져 나와 우주 끝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마치 나의 기도가 비가 되듯이 이슬이 되듯이 땅을 적시고 생명이 돌아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우는 병원이 행복과 희망의 병원이길 희망하고 발원할 때 그런 병원은 자연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헌신이고 자비고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卍

용정운(부다일러스트)



내 마음의 고향 ‘법화경’

명현(30기 호스피스 수료생)

누구나 설렘으로 다가오는 경전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으로 합장하는 마음의 고향이 있을 것이다. 가슴 뭉클한 그 곳이 고향일 것이다.

출가사문이 되어 행자라는 시절을 거치고 강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큰 대중생활이 처음인지라 강원 4년을 제2의 출가로 여긴다.

많은 감자를 서로 비벼 씻을 때 감자의 껍질이 벗겨지며 속살을 드러내듯, 모난 돌이 굴러굴러 동그란 돌이 되듯 모난 나의 각을 원만하게 하는 강원생활은 스승이다. 힘든 강원생활에서 법화경 소책자를 구해서 경상에 두고 매일 독송했다. 어릴 적부터 독송했던 법화경인데 입으로만 독송했다. 하지만 이근(耳根)의 공덕이었을까? 한장 한장, 한권이 넘어가고 다시 볼 때 언제 이런 내용이, 이런 글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록새록 신기하고 가슴 설레는 고향이며 안식처가 되었다.

법화경을 독송할 때면, 2554년 전 영축산의 부처님 법문하시는 청정대중에 살며시 참여하며 자비하시고 자상하신 모습에 환희로움으로 돌아온다. 적절한 비유와 방편의 극치인 법화경에 감탄하고 자비하신 모습에 귀의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경전내용이 비슷한 상황이면 또 한 번 감탄한다.

아름다운 법화경 가운데서도 <법시품>을 소개할까 한다.

“약왕이여, 만일 어떤 보살이 여래가 열반에 든 뒤, 어느 때이든 이 법문을 대중에게 설한다고 하자. 약왕이여, 그 보살은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몸에 걸치고 여래의 자

리에 앉아 이 법문을 대중에게 설해야 할 것이다.

현자는 승리자인 내 방에 들어와

내 옷을 몸에 두르고

내 자리에 앉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경전을 설해야 할 것이다.

자비의 힘이 내 방이며

인내와 마음의 부드러움이 내 옷이며

공성이 내 자리이다.

거기에 앉아 현자는 이 법문을 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살펴보자. 모든 중생들에 대한 자비가 여래의 방이라고 하셨다. 내 방에는 ‘자비’가 존재하는가? 물어보자! 부처님께서서는 “선남자 선여인은 거기(여래의 방)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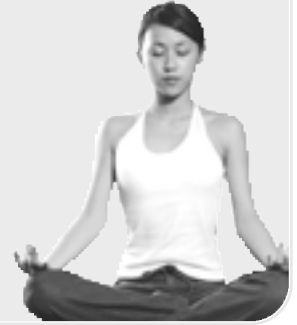
위대한 인내와 마음의 부드러움이 여래의 옷이라 하셨다. 나의 옷을 보자! 어떠한가? 상대방이 들어올 수 없게 방화벽을 높게 세운 건 아닌지? 부처님께서서는 “선남자, 선여인은 그것으로(인내와 마음의 부드러움) 몸을 감싸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모든 존재의 공성을 깨닫는 것이 여래의 법좌라 하셨다. 이제 나의 자리를 보자! 집착과 아만에 쌓이지 않았다고 손을 내저어 보이는 나의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 부처님께서서는 “선남자, 선여인은 거기(모든 존재의 공성을 깨닫는 것)에 앉아 이 법문을 대중에게 설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법좌에 앉아 법화경을 독송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모든 기쁨은 나의 아름다운 행동의 변화에서 온다고 본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깊은 지혜 연못에서 피는 연꽃이 되기를 축원한다. 卍

요가명상과 심리치유

김선경(비하르요가원 원장)



눈 만 뜨면 웰빙 웰빙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웰빙과 관련된 상품이면 불경기에
도 잘 팔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웰빙(Well-being)이란 무엇일까? 문
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잘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사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며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그게 잘사는 거라면 아마 부자들은 다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들
은 다 불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무수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물
질적인 풍요가 행복의 지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 행복의 지수가 되는 건 무엇일까? 요가에서는 통합적인 건
강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건강이 결국은 영적인 자각을 가져다
주는 밑거름이 되어서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게 한다. 첫째는 몸이 건강해서 병이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마음이 건강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건강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누
릴 줄 알아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에서 온다. 그렇게 마음
의 건강을 지킬 줄 알게 되면 사회적인 건강의 지표가 되는 인간관계의 적응력도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 사회적인 건강이 통합되어질 때 진정한 웰빙이 이루어지
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요즘 웰빙의 붐을 일으키는데 명상과 요가가 한몫을 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조깅
이 건강의 상징이고 뛰고 달려야 땀이 나고 몸에 이롭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요가나 명상이 붓을 이루며 가만히 앉아 눈감고 명상에 잠기는 것은 힘쓰고 뛰기보다 긴장을 이완시키고 몸을 푸는 것으로서 오히려 온몸이 가뿐해지는, 그야말로 웰빙형 정중동(靜中動)의 운동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웰빙은 움직임에서 고요함으로, 힘 모으기에서 힘 풀기로, 나아가 빠리가 아니라 천천히, 힘차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그리고 외양이 아니고 내공으로,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에 집중하는, 그야말로 삶의 가치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긴장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고혈압·심장병·당뇨병·피부병·비만·암 등 심인성 질병의 원인이 되고, 우울증·불면증 등 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요가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우주에너지와 하나 된 참자아를 자각하기 위한 수행법이였다. 이러한 수행 여정에서 자기 안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요가수련법으로 전해졌고, 이것이 곧 이즈음에는 요가치유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요가 자세법들은 7만2천 개 정도의 몸의 에너지 통로를 열어주고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의 장애를 제거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질병은 곧 이것들의 막힘과 장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요가명상은 의식의 차원에 따라서 크게 네 단계로 수행법을 분류한다. 첫째는 ‘쁘라띠아하라’ 단계인데, 의식을 외적인 감각으로부터 내면으로 철수하는 단계로서 ‘제감법’이라고 하며 크게 네 가지의 명상법이 있다. 두 번째는 ‘다라나’ 단계, 의식을 내면에 집중하는 단계인데 다양한 행법들이 있다. 위의 두 단계의 다양한 행법들을 ‘명상법’이라고 이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디아나’, 즉 ‘명상’이라고 부른다. ‘디아나’에 이르면 특별한 행법이 없이, 의식이 감각과 사고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바로 내면에 집중이 된다. 마지막 단계는 이원성이 초월된 ‘사마디’이다.

여기에서 뿌라띠아하라(제감법)와 다라나(집중법)의 다양한 요가명상법들이 심리치유의 도구가 된다. 요가명상법은 긴장과 갈등에서 비롯된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돕는 웰빙 치유법이다. 卍

마음밭에 무얼 심지?

최영순(만화가)



최영순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을 공부했다. 철들기 전에는 학교 대신 강릉 남대천 하구의 역새밭에 누워 있거나 어두컴컴한 싸구려 극장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고, 철든 후엔 '차비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길 잃은 아이들과 함께 텃밭며 한 시절을 보냈다. 1999년부터 본격적인 만화 작업을 시작했다. <불교신문> <스포츠신문> <굿데이>를 비롯한 여러 신문과 <현대모터> 등 사보에 만화를 연재했다.



암의 치료

김진목(파라다이스병원장)

우 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그 동안 암 치료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암 환자 사망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사망률 중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과 다르지 않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치료법 중 일부는 오히려 암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다.

암이라는 진단을 마치 사형선고를 받는 것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암에 걸렸다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며, 바로 죽는 것도 아니다. 어떤 암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완치될 수도 있으며, 소위 자연치유라 하여 간혹 저절로 낫는 경우를 경험하는 암 환자도 있다. 자연치유는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연치유력을 강화시켜 암을 극복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만일 암이 극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암으로 진단받은 시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연장된 삶의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있다는 것이다.

암 치료의 가장 주된 목표는 환자에게 연장된, 유용한, 편안한, 풍요로운, 생산적인,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가져다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하고 있는 것이다.

암 치료에는 수술·방사선 치료·항암제 치료·호르몬 치료·면역요법·온열요법·식이요법·영양요법·정신요법·영적요법·운동요법·생물학적 반응물질(BRM)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며, 이들을 복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치료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질병 자체에 대한 치료보다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법을 결정할 때에는 항상 환자의 편안함을 염두에 두면서 환자의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특히, 암에 있어서는 현명치 못한 치료로 인해 환자에게 필요 없는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삶을 단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이되지 않은 대부분의 암에 있어서는 종양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수술적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항암제 치료는 백혈병이나 임파계 암, 그리고 빨리 성장하는 특성을 보이는 일부 암에서 좋은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항암제 치료의 효능이나 범위에 대한 발전이 계속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방사선 치료는 많은 경우에서 수술 후 부가적 치료로써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우에 따라서 항암제 치료와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되지만, 피부 표피암이나 깊게 침투된 방광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확실히 연구가 많이 되었고,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

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수술을 제외하고는 아직 만족할 만한 정도가 아니다. 다양한 단계의 모든 암의 치료를 담당했을 대형 병원에서 낸 통계 결과를 보면, 전체 암 환자 중에서 일반적인 치료법을 통해 완치되는 경우는 1/3 정도였다. 그리고 나머지 1/3은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불치 판정을 받은 경우였고, 나머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완치된 줄 알았으나 결국 재발하여 사망한 경우였다.

종종 조기진단을 통해서 완치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조기 진단 자체가 완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예후가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매우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예후가 극히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에 오히려 수년 이상 생존한 경우가 있어 우리의 예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때가 적지 않다. 이처럼 암의 진행 양상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암에 대한 연구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규모 환자 그룹에서의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만을 파악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또한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로 대표되는 현대의학적 암 치료 이외에 니시의학으로 대표되는 자연의학, 면역영양요법, 미슬토 주사요법, 비타민C 다량 투여 등의 치료를 통해 암 환자에게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卍



다만 스스로 비심(非心) 버리면
번뇌는 부서져 자취는 없고
입고 곱고 마음 안 두니
두 다리 쭉 펴고 편히 쉬도다.

사랑이 넘치는 마음

흥등행정토마을 간병사



나는 주로 병원에서 환자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전문 간병사다. 10여 년 전 능행스님께서 운영하시는 지장정사에서 1기 간병사 교육을 받을 땐 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직업이 되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때 능행스님의 권유로 간병사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물론 어떤 일이라도 하고 있을 테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으리라.

간병사 일이 비록 힘들고 고달픈 일이지만 그곳에서 나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 새록 새록 살아나는 환자들을 보면서 같이 웃고 울면서 끈끈한 사랑을 느끼고, 때로는 속상한 일 때문에 눈물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일을 사랑하고 즐긴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낀다. 내 손을 거쳐 간 수많은 환자들 중에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있지만 퇴원하시어 간혹 전화라도 주는 날엔 무척 기쁘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능행스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솟는다. 그래서 틈틈이 정토마을에서 봉사를 하고 싶었으나 사는 데 급급해 짬을 내지 못했다가 드디어 정토에서 스님을 시봉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내가 시봉하는 스님은 50대의 조용하고 순수한 스님이신데 안타깝게도 소내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계신다. 발가락 하나만 만져도 아프시다던 스님, 팔에 힘이 없어 수저 들기도 힘드시고 일어서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스님. 눈이 어지러워 책도 보지 못

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대화가 불편하시던 스님이 도감스님의 권유로 법화경 독송을 하게 되면서부터 발음도 똑똑해지고 사경도 하시는 등 이제는 옆방스님께 경도 읽어주시고 글도 가르치신다. 요즘은 워커에 의지해 한발 두발 힘겹게 걸으시며 잘 참아내신다. 일어서서 걸으시겠다는 의지가 강해 결국은 다리에 기브스를 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병마와 싸우면서도 스님의 위의를 결코 잃지 않으시며 운동시간 외에는 염불과 독송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신다. 그런 스님을 지극히 아끼며 보살펴 주시는 은사스님의 정성은 옆에서 보는 이에게 더없는 감동을 준다. 비록 혈육의 정은 아니지만 스승과 제자로서 서로 믿고 의지를 북돋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두 분, 이것이 사제간의 끈끈한 정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옆방스님과 같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이다. 한 분은 팔이 불편하시고 또 한 분은 다리가 불편하시다. 두 스님은 어느덧 한 몸이 되어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와가며 따끈한 차 한잔에 우정을 나누며 도반으로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요즘 내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겼다. 꽃피는 봄날에 이 두 스님이 손을 꼭 잡고 금불사 오르는 오솔길을 걸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가득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줄 수 있게 되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나에게 이렇게 행복한 인연을 맺게 해주신 부처님과 능행스님께 엮으려 절하며, 능행스님께서 추진하시는 자제병원이 하루빨리 성취되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卍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 일 년, 그 후

김경오(본지 편집위원)

2010년부터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은 위덕대학과의 병합을 통해 석사와 박사의 길을 열어놓고 대학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벌써 한해가 훌쩍 지나버렸다. 그렇게 세월을 버리고도 누구나 빠짐없이 얻는 것은 나이. 상담대학에서 명상심리대학으로 개명을 마친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의 나이도 이제 두 살로 접어든다.

일 년 동안 이십 여 명의 학생들이 봄·여름·가을·겨울 작은 교실을 채웠다 비웠다 하면서 봄보다 더 풋풋했고 여름보다 더 뜨거웠고 가을보다 더 알찼고 겨울보다 더 냉철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기실은, 스승님들을 따라가기가 참 버거웠고 그래서 묻고 따지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낸 기억들로 가득하다. 그렇게 묻고 따지다 한 방씩 맞다가도 어느 순간 고개를 끄덕 끄덕 가슴을 토닥토닥 어루만지는 스스로를 발견했던 기억들 또한 새록새록하다. 그래서 가슴속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이를 보디사트바라고 한 다던가. 항상 깨어있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님들이여 오래! 시끌시끌한 난장판 같은 욕망에서 벗어남을 배우고 익히고자 한다면!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은 언제나 그 문을 열어 놓고 있다. 卍



선업의 인연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입니다.
험난한 길 오를지라도
그 길이 험겹지 않은 것은
내 안에 무궁한 진여(眞如)의
성품이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그 길에 오르고자 우리들,
하나로 화(化)합니다.

- 하나,** 전지윤(갯바위 치매센터 간호사, CPE수료생)
둘, 송운환(현대자동차 불자회, 상담대1기생)
셋, 해인심(정토사 관자재회 자원개발부 부장)
넷, 정승민(동국대 불교학과 학생, 30기 호스피스수료생)

가을학기 CPE교육을 마치고 난 뒤

전지윤(갯바위 치매센터 간호사, CPE수료생)

“지윤아, CPE교육 함 받아봐. 너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야.”

“CPE가 뭐예요? 어떤 교육인데 그러세요? 스님께서 해보라시니 한 번 해볼게요.”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의 권유로 CPE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본 나는 마냥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게 좋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보디사트바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 시작 전 슈퍼바이저(능행스님)와 상담을 하게 되면서 어렵פות이 알게 되었다.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를 불교에서는 보디사트바(Bodhisatva) 교육이라고 하고, 경험을 토대로 한 형태의 학습으로서 영적 돌봄에 대한 성찰 능력 성장, 영적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영적간호가 필요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었다.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디사트바 교육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생각 없이 뛰어든 건 아닐까?” 하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 그러면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 나를 긴장시켰다.

2009년 9월 11일, 첫 수업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아찔하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떨면서 안절부절했는지, 생소한 단어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 들을 때에는 가슴이 답답했다.

교육훈련목표, 주말성찰기, 케이스스터디, 그룹관계세미나, 불학적·심리적 고찰 세미나, 상실감성찰기, 가계도식, 평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나의 모습에 나 스스로

도 좌절하고 실망했다. 첫 대면에 그룹원들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난 항상 당당하고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활발하고 명랑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었는데. 그런데 한주 한주 수업을 하면서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나 포장이 잘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훈련 목표를 세우면서 조금함으로 인해서 말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나름 주위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부드럽게 대화하고 표현하고 싶다는 나의 내면을 보게 되었다. 16주 교육 기간 슈퍼바이저와 그룹원의 도움을 받으며 연습을 하였고, 조금씩 변화되는 나, 변하려고 노력하는 나, 통찰력이 키워지는 나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가슴 아픈 기억에 대해 수필을 적어 발표했던 ‘상실감 성찰기 수업’ 이었다. 고1 때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신 뒤 한 번도 누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이나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 한적이 없었던 터라 나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글쓰기 전부터 나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었고, 발표 당일까지 엄청난 갈등을 겪었다. 슈퍼바이저와 그룹원들과 나의 상실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나의 기억을 다시 되돌려보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슈퍼바이저의 따뜻한 포용은 너무 감사했다. 아직까지 그 따스한 기운이 나의 몸에 남아 있는 듯 하다. 그 후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조금은 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상실감과 병환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임상에서 영적간호 뿐만이 아니라 생활상에서도 나를 찾고 나를 배려하며 공감할 수 있는 보디사트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너무나 소중한 인연 될 수 있게 해주신 능행스님, 수필스님, 석운스님, 정수스님, 원옥스님, 성귀스님, 혜능스님, 지담스님, 김현아 보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린다. 卍

대 여섯 살 때 고모 손에 이끌려 처음 절에 갔다. 허기진 배를 나물과 쌀밥으로 채워 행복해 했던 것이 부처님과 의 첫 인연이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불교학생회에 나가면서 뜻도 모르고 읽고 외운 경전과, 법회 때 스님과 법사님들 법문을 들으며 30여 년 간 부처님 법을 따라왔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직장불자회 봉사활동으로 인연이 되어서 2008년도 마하보디교육원에서 받게 된 불교 전문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죽음'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나에게 너무 큰 변화가 생겼다.

마치, 놀이동산 기구를 타고 하늘로 솟구치는 듯한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그런 변화도 시작에 불과했다. 2009년도 마하보디교육원에 처음 개설된 1기 상담심리대학 과정을 1년간 배우면서 느끼는 행복감이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지난 2년간이 나의 삶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를 알아가면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흔적에서 다시 발견하고 숨이 멎을 것 같은 분노와 설움,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고통과 탄식, 이해와 용서를 고스란히 느끼는 여정을 지나면서 안도와 행복에 겨워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본다.

요즘 주변에서 평소에 알던 지인들이 얼굴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호기심 어린 질문을 종종 해온다. 그런

나를 찾아가는 즐거움

송운환(현대자동차 불자회, 상담대기생)

나를 찾은 것도 좋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같이 공부해 가는 도반들을 알게 된 것이다.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기뻐하면서 쉼 없이 쌓이는 정이 가족보다 더 깊어진 것 같다. 나는 방학 동안도 도반들이 보고 싶어 안달이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은 서양 심리학이 이뤄놓은 학문과 지식적인 이론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인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재발견하고 실제 상담에서 접목하는 대단히 실용적인 과정이다.

이번 2010학년도부터는 위덕대학교와 교육협력협정을 맺고 대학원 과정으로써 불교심리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 지도자 과정과 석사과정까지 개설되어 임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학문적 성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되어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멋진 혜택이 될 것 같다. 과정개설을 위해 노력해주신 원장스님 이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책임감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 공부하여 보답하리라 다짐해 본다. 卍

아름다운 여정

해인심(정토사 관자재회 자원개발부 부장)

글을 쓴다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많아 평소 일기나 간단한 메모를 하는 나에게 수필스님이 글을 말씀하신다. “스님 너무 어려워요.” 하며 사양하기도 전에 지담스님이 “해인심이 할 거예요.” 하신다. 나의 답변은 그만 묻히고 말았다.

평상시 그저 있는 그대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보자 생각하니 부담스러움이 덜하다. 이곳 언양 마하보디교육원에 오게 된 인연은 나의 삶에 포함되어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앞으로 나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성숙된 시간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바람과, 불교와 관계되는 일을 하고자 발원했었다.

사실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대로 삶을 경험하며 산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신념은 마하보디교육원에서 생활하게 된 인연인 것 같다. 능행스님의 불사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한 공간에서 같은 방향의 크고 작은 목적으로 처음 만나 생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해가는, 더 나아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으로 공동체 생활의 경험도 새롭고 좋은 경험인 것이다. 요즘은 모든 것이 인터넷이나 통신으로 편리하게 이루어지다보니 궁금한 정보도 필요에 대한 충족이 인터넷으로 해결이 되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나의 직장인 마하보디교육원은 멋진 삶의 현장이다. 학교이며 직장이며 동시에 도량이다. 7일간의 호스피스교육과, 주말마다 이루어지는 상담대학, 아침저녁으로 정진하는 스님들의 법화경 기도소리와, 이에 동참하는 신도님들이 매월 4번째 주말에 법화경 철야정진기

도를 드리는 곳이다. 아침에 도량석을 하시는 스님의 목탁소리에 잠이 깨고 다시 목탁소리를 듣고 아침공양을 시작할 때 스님과 재가자가 함께 한다. 대중스님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어서 나의 몸과 마음은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로 이어진다. 말 한 마디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배움이다. 스님들은 물론 재가자가 모두 가족과 같이 서로 챙겨주고 도우며 말없이 각자의 소임을 해나가고 있다.

교육원 가족들을 소개해 보면, 몹시 바빠 얼굴 뺨기가 힘든 원장스님, 살림살이 준비해주고 마음이 따뜻하신 원주스님, 출판업무와 논문준비하시랴 CPE 담당하시랴 바쁜 수필스님, 강사 섭외 및 자원봉사에게 따스한 차와 마음을 나누어주는 교무담당 지담스님, 명상심리대학의 제반행정업무 담당스님이고 웃음 가득한 혜능스님, 후원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며 무우작의 명수 원만성보살님, 요리사시험 준비하며 부지런하고 재주가 많으신 금강지 보살님, 어린 나이에 자원봉사를 기꺼이 하는 고운 마음의 문혜가 있다. 사무실에는 마음 씀씀이 깊고 인정스럽지만 일에 대한 카리스마가 있는 교육원의 보물이며 셋별인 별리 대리가 있다. 그리고 교육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승민이, 나이는 어리지만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아참 이제 막 들어온 새내기 가족 향림거사와, 교육원의 듬직한 맥가이버 범행거사님을 빼놓을 수 없다.

능행스님의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많은 어려운 상황의 불자님들이나 스님들께서 부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지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다. 병원불사의 중요함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뜻깊은 일인 것이다.

우리들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매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며 깨어있기를 실천해 간다면 하나됨의 공동체 생활은 자제병원의 모습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다. 지혜와 자비의 벽돌이 쌓여나갈 것이다.

나는 오늘도 이 아름다움의 여정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발원하며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卍



삶과 죽음, 그리고 연기

정승민(동국대 불교학과, 30기호스피스 수료생)

삶, 나는 '삶'을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자각과 통찰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지금 현재, '나' 자신조차도 나의 행동과 느낌을 자각과 통찰을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21년 전,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는지, 무슨 이유로 잉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면서 생각하고 사유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러면서 유아기 때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아버지의 잦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점점 집이 작아지고 이사를 많이 다니고 시골동네로 옮겨 갔다. 또한, 항상 집 앞에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인부, 사채업자 등의 사람들이 있는 등 집은 쇠락하여 갔다.

하지만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자 불교라는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불교라는 종교의 철학적 매력에 빠졌다. 물론 건고 말할 수 있을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는 갔었지만 깊은 믿음과 매력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다 불교에 몰입한 나머지 매주 절에 가고,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불교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불교호스피스와 능행스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스님과의 만남도 몇 번 이루어지면서 '죽음'이란 단어가 약간의 실마리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불교를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는 거의 확정적인 통보를 하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입학을 하자마자 집안 사정과 학업의 효율적인 계획으로 인해 해병대에 지원입대하게 되었고, 군대에서도 또한 '죽음'과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죽음’이란 실타래의 실마리를 잡고 풀려고 하자 끝도 없이 이어지고, 중간중간 풀지도 못하게 묶어놓은 매듭이 가로 막고 있었다. 복학 후, 어떤 인연이 되어 능행스님을 다시 뵙게 되었고, 능행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내 안의 나 자신도 모르던 감정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 후의 특강으로서 나 자신을 정확히는 계기가 되었다.


죽음,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해지고, 삶 속에서 만들어졌던 욕망에 대한 일체의 의미를 상실한다. 생명이 있는 한 불가피한 현실이다. 하지만 죽음이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나 또한 생과 사의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죽음은 삶과 공존하며, 공존하지 못하면 생이 없어진다고 본다.

죽음, 생각할수록 풀리지 않는 실타래이지만,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행할 것이다.

나의 어린 시절,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있었기에 불교에 의지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불교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어린 승민이가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의 승민이로 성장하면서 ‘죽음’에 대한 사색을 하게 되었고, 불교복지와 호스피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로 인해 불교호스피스를 알았고, 능행스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스님과 함께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다. 들숨과 날숨이 항상 공존하듯이 태어남이 있기에 죽음이 존재한다. 죽음이 있음으로 삶이 존귀한 것이다. 생사가 공존하기 때문에 호스피스가 절실히 필요하고, 호스피스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아직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고 글이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글을 이 다음에 다시 봤을 때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에서 안 된다면 내생, 그 다음 생이라도 죽음에 대한 자각과 통찰을, 더 나아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이를 사랑하고, 모든 것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卍





꽃으로도 피어날 수 있으며

풀잎으로도 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연법이기도 하다지요.

물 위에 꽃을 띄워 성전에 바치는 마음이라면
무엇인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연에 기대고, 불법에 기대어
함초롬 마음을 모으고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1600년의 역사를 옮겨 쓰는 일은 간단치
않습니다.

성전에 합장하여 귀하디 귀한 마음을 바치옵니다.

- 인도 성지에서

마/하/보/디/교/육/원/소/식

Bodhisattva

1 30기 호스피스 교육



“호스피스는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이 마하보디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호스피스 교육의 특징일 것이다. 2010년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7박 8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61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이번 교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자기 내면의 심리치유와 더불어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 그리고 그를 위한 돌봄 교육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다루어졌던 입체적인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원의 원장인 능행스님은 “죽음에 끌려가지 않는 죽음, 죽음을 통해 더 높은 의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상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금 여기에 깨어있을 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교육의 의지를 밝혔다. 61명의 새로 탄생한 교육생들은 1월 31일 수료식을 끝으로 힘찬 발걸음과 함께 세상을 향해 보디사트바의 화현으로서의 행을 시작하기 위해 나섰다.

마/하/보/디/교/육/원/소/식

Bodhisattva

2 감마교육 실시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그 가치를 달성하도록 돕는 감마교육이 지난 2월 10일 ~ 1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스님들과 실무진들, 스님들께서는 교육원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으며 심도있는 의견들이 펼쳐진 자리였습니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 위덕대와 학술교류 협정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 위덕대학교에서는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과 위덕대학교의 학술교류 협정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조인식에는 배도순 위덕대총장님과 불교학과 장익 교수님 등 학교관계자들과 본 명상심리대학 학장이신 능행스님을 위시한 스님들과 김경일 동국대 상담심리대학원 교수님 등 교수진들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로써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은 대학원 과정의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행정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소재
- 건축면적: 지하 1층, 지상 4층 3,636㎡ (1,100 평)
- 병 상 수: 70병상
- 주요서비스: 호스피스, 완화의료, 재활, 외래, 가정간호, 의료봉사 등

완화의료전문

자제(慈濟)병원

자제병원은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의 희망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전문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자제병원은 죽음을 통한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품위 있고 존엄한 삶에 대한 학습은 물론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여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함께 베푸는 나눔!

전문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민들을 위한 종합의료복지타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제병원은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로 건립됩니다.

건립/후원/계좌

농 협 401131-51-075952 국민은행 713701-01-140932 (예금주 :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자제병원 건립 사무국

689-8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Tel : 052)254-2340, 2341 Fax : 052)254-2347

http://jungtoh.com E-Mail : jungtoh@cpebud.com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인 정토마을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자비 실천의 사랑으로 성심을 다하는
간호와 지지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동행... 정토마을이 함께합니다

소리없이 외치는 병든 생명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우의 통증관리와 영적지지, 다양한 Case 연구를
통해 정토마을은 21세기 발전된 호스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복잡한 절차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 상 : 말기암 또는 이에 준하는 말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
- 운 영 : 24시간 전인적 돌봄 제공

상담(전화, 방문, 인터넷) → 입소심사 → 입소통보 및 입소

정토마을호스피스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 043)298-2258/ Fax : 043)298-1457 <http://jungtoh.com> hospice@cpebud.com

이제 각종 기부금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운영사무국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매월 10일 각종 기부금내역 및 운영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이제 후원가족 여러분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본 공동체의 보다 투명하고 평등한 기부금 운영원칙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공동체는 보다 평등하고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기부금내역 열람 안내

1. 홈페이지(<http://jungtoh.com>) 에 접속
2. 사이버행정 메뉴-〈기부금내역〉 클릭
3. 각 내역별 열람

앞으로 정기회지 〈보디사트바〉에는 기부금 내역이 실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로/후/원 회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로후원회원 여러분! 매달 후원금을 은행에 가시어 납부하시기 번거로우시죠?
지로후원을 **자동이체후원으로 변경**하시면 매달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이 줄고, 소중한 시간과 후원금의 지출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사랑의 실천을 앞서서 나누시는 후원자님들의 변치않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지로후원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CMS 자동이체 변경안내

- 대 상 : 기존 지로회원 및 CMS 미신청자
- 변경방법 : 전화 (043)298-2258, 홈페이지(<http://jungtoh.com>)

농 협 : 401120-51-016794

국민은행 : 713701-01-001909 예금주 :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기부금 내역 및 운영 내역 공고에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법인사무국
043)298-2258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후원참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작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후원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은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토마을은 물론, 병들고 가난하여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줄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도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빠르고 간편하게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 자동이체(CMS), 무통장입금, 지로입금, 물품후원, 복돼지 분양
- 후원접수 : 전화, 홈페이지, 방문
- 후원계좌 : **농협 401120-51-016794**

국민은행 713701-01-001909 예금주)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자동이체(CMS) 후원신청을 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하며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후원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당신의 고귀한 기부금은

- I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기금으로
- II 불치병 환자를 비롯한 특히, 암환자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 III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 기금으로 쓰입니다.

재단정토사관자재회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 043)298-2258(대) Fax : 043)298-1457 <http://jungtoh.com> jungtoh@cpebud.com

마하보디교육원 교육 안내

사마타 위빠사나 명상교육

- 일 정 : 2010년 3월 7일 오후 2시 ~ 3월 14일
- 대 상 : 스님 (선착순 15명)
- 인 원 : 총 25명
- 장 소 : 마하보디교육원 (숙식)
- 문의처 : (052)264-1007

위빠사나 선정수행

- 일 정 : 2010년 3월 25일 ~ 3월 29일(4박 5일)
- 대 상 : 스님, 일반인
- 교육비 : 20만원 (상담대상은 행정실에서 추후공지)
- 장 소 : 마하보디교육원
- 문 의 : (052)264-1007

2010년 봄학기 CPE교육

- 일 정 : 2010년 봄학기(3월 ~ 6월) 총 16주간(매주 금요일)
- 내 용 : 임상에서의 총체적 돌봄을 위한 리더 과정
- 대 상 : 스님, 임상현장에 종사하는 재가자, 불교학생(정원 8명)
- 문 의 : (052)264-1007

2010년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

※마하보디 명상심리 대학은 임상과 치유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위덕대학교와의 병합을 통해 석사·박사 과정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 모집인원 : 25명(정원)
- 응시자격 : 스님, 포교사, 대학수준의 교육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교육기간 : 2년과정 (석사과정의 경우 5학기)
-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 문 의 : (052)264-0180

2010학년도 입학생모집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은 심리치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입니다.

2년과정으로 운영되며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수행방법, 상담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명상이론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특히 임상과 실습을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심리치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 모집인원 : 25명
- 응시자격 : 대학수준의 학업을 수학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스님, 모교사, 불교지도자 분들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2.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 대학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초본
- 승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요교사자격증 (해당자에 한 함)
- 증명사진 3매 (면역화 3x4)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대학 행정실
- 원서교부 및 접수일정 : 2010년 2월 20일까지 (후회접수 가능)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4. 학전 및 유의사항

- 강의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저녁 6시 (16주간)
- 개강일 : 2010년 3월 6일 (토) 오전 9시 30분
- 대학기 정규과정외의 특강 및 워크샵 진행
- 정규과정 이수 시 명상심리치유사 자격증 수여
- 타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연계 가능하도록 지원

5. 대학소재지 및 문의처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영동리 138-1
마하보디교육원 (가치산 4남사 부근)
- 전화 : 행정실 (052)264-0180 / 원도문 010-2051-1457 (평일출발)
- 홈페이지 : <http://www.mahacounseling.com>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 이사장



≡ 불교임상기도집

농행 편저 / 아따솔

이 책은 호스피스 교육생과 자원봉사자를 뿐 아니라, 임종을 준비하는 모든 불자와 스님들, 그리고 사별, 행원, 각 가정 중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상에 기도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심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농행 지음 / 도솔

불교수원자들이 호스피스로 일하는 정혜마을에서 한여 명의 죽음을 배움에 온 외국인 농행스님의 신앙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선고받은 환자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 지문어거 주위를 걸음 때마다 느꼈던 후회와 양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남긴 여운 등을 지문한 일차로 써내려 갔다. 정혜마을 주인의 자연을 담은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농행

- 1000년 종남 인가군 학원사 수련 스님을 은사로 출가
- 정혜마을 책임형 호스피스 시설 운영
- 아라리노그로센터 교육원장
- 정혜마을지회 이사장
- 저서 『불교원지를 위한 기도집』, 호스피스 사례집 『심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불교임상기도집』

≡ 구입처 | 이책들

• Add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인동리 136-1 • 전화 | 052-264-5007